

송주희

London College of Fashion 에서 Womenswear를 전공하여 현재까지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송주희 작가입니다. 저에게 패션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통해 계속 순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Circle Back; 잇다.입다. 는 버려지는 의류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며, 지속 가능한 패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저의 디자인 여정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.

퇴근(AFTER WORK)



하루를 입고 살아낸 옷은 집에 돌아와 의자 위에 머문다. 그 순간 우리는 일에서 벗어나, 옷을 벗어두며 비로소 '나'로 돌아간다. 버려질 원피스는 의자 커버로 슬랙스는 가방으로 다시 태어나 퇴근 후의 심을 담아낸다.